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0호 【루계 제25078호】 주체104(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사리원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황해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황북땅에 높이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을 안고 평산화강석광산, 은파광산, 도금강관리국, 도무역관리국, 도대흥관리국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운수기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사리원시에 모신다는 소식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접한 도정보화관리국, 도인민병원, 사리원방직기계공장, 경암산은하피복공장, 사리원은하피복공장, 시영예군인가내생산협동조합, 시편의봉사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치였다.

황북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한영춘, 금석무역회사 송림건재공장 로동자 박충일, 도고려약생산관리국 부원 리혜순, 도도매상업관리처 부원 전순녀, 황북종합대학 교원 리일홍, 사리원백화점 부원 림금주, 로동자들인 박혜옥, 리성희도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사리원제2사범대학 도서관 사서 김경남, 도농촌경리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렴경혜, 은파군검찰소 로동자 김은희, 은파광산 로동자 강영애, 도인민위원회 도시경영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봉훈, 사리원신광연유판매소 소장 리영옥, 사리원하나전자제품상점 소장 안세영, 사리원시 직관선전사 로동자 조광호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안고 사리원시 경암산유원지관리소 로동자 김춘복, 사리원시 은덕원 로동자들인 장혜영, 배경순, 사리원시랭동공장 부원 김복순, 도산원 과장 황수경, 도청소년과외교양지도처 지도원 김영미, 평양철도국 사리원사령실 사령원 홍연옥도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몸가까이 뵈오며 절세위인들의 축복속에 살고싶은 절절한 심정을 안고 도인민위원회 직맹해설강사 김옥녀, 사리원고등에술전문학교 교원 김혜영, 사리원영예군인고려약공장 로동자 류경숙, 사리원시 신양동 김명숙, 성문동 리덕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황해북도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이 조국과 혁명, 인민을 보위하는 길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모스쯥스끼 콤쏘몰레쯔》,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실었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쭈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기네국내, 국제방송은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시여 연설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의지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마두산혁명전적지 답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충정의 대오가 혁명전적지들에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때로부터 전적지를 찾는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도 못되는 기간에 6만 5000여명에 달하는 답사자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았다.

이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을 따라배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굳센 의지의 뚜렷한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마두산혁명전적지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안주지구 비밀근거지 밀영들중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서부일대의 지역적령도거점, 중요한 군사작전기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맵짠 추위속에서도 오랜 시간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파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적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온 나라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면서 전민항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고있다.

지난 1월 전군의 모범적인 인민군군인들은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출발모임을 진행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마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행군을 진행하였다.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뜻깊은 8월에만도 수천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먼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서 마두산, 상산, 전산, 특백산밀영들로 꾸려진 안주지구 비밀근거지가 최후공격작전시기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은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국내깊이에 비밀근거지 밀영망들을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령군술의 비범성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겨하였다.

답사자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의 문주인듯 답사로정의 첫입구에 서있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이 새겨진 구호나무앞에서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넋이 맥동치는 신념의 글발앞에서 답사자들은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하시며 천만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기며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을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탄생》, 《조선이 독립되면 **김일성**장군 대통령》,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문헌들도 답사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답사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마두산혁명전적지가 백두산과 더불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길이 빛나게 되였다고 하면서 눈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순결한 량심과 의리, 강의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충정의 맹세들을 다지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 굳은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채 히 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벼단운반 3배, 낟알털기 2배의 실적 기록

룡천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룡천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자랑을 안고 벼단운반과 낟알털기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룡천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17일까지 벼가을을 전부 끝낸데 이어 일정계획보다 벼단운반은 3배, 낟알털기는 2배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것은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가기 위해 낟알털기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룡천벌의 당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벼단운반과 낟알털기전투에서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칠 불같은 결의밑에 더욱 분발해나섰다.

룡천군에서 뜻깊은 10월에 낟알털기를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군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는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자고 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영농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이와 함께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데서 벼단운반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뜨락또르들의 만가동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신암, 장산, 덕승협동농장들이 벼가을을 남먼저 끝내고 벼단운반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알곡생산성과로 받들 불타는 열의드높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그 어느 단위보다도 많이 받아온 신암협동농장에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벼단운반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백여정보의 벼단을 실어들여 낟알털기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높이 울렸던 《발갈이노래》를 부르며 벼단운반을 다그쳤다.

그들은 쌀이 많아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를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을 더 굳세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였다. 농장에서는 거리가 먼 포전에는 뜨락또르를, 가까운 포전에는 소달구지를 리용함으로써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면적에 해당한 벼단을 운반하였다.

덕승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도 총공격전의 발구름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졌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벼단운반을 계획된 날자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염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힘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으로 낟알털기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남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애국충정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일군들은 례년에 없는 왕가물을 이겨내며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낟알털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종합탈곡기와 소형탈곡기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시간당 낟알털기량을 더욱 높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일정계획보다 수십t이나 더 많은 낟알을 털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룡산협동농장에서도 벼가을을 남먼저 끝낸 신심드높이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전기가 없이도 낟알털기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원동기들을 충분히 갖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에서 일정계획보다 매일 2배의 실적을 냈다.

하석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도 설비점검을 짜고들어 탈곡기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낟알털기에서 매일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신심드높이 총공격전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룡천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전투장들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완강한 공격정신과 일본새를 지니고 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9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언제와 취수구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며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10월에 들어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현행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빠른 시일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수력발전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이 각지 발전소들의 물확보정형과 수력구조물상태를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그마한 이상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물관리 및 설비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9월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수풍발전소와 위원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10월에도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강계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고조시대를 떳떳이 추억할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가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내밀면서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가물막이공사를 와닥닥 해제끼고 수천m의 취수로를 질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취수로안에서 준첩선을 효과적으로 기동성있게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수만m³의 감량을 운반처리하면서 자체의 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부전강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언제보수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1300여m³의 콩크리트치기과제를 수행하고 9월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태천발전소와 삼수발전소,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발전효률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를 위해 전력공업성에서는 수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십개에 달하는 수차날개를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제작하였다.

새 수차날개들이 도착하는데 맞게 발전소들의 로동계급은 보수전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수차의 진동과 메달은도상승을 막고 종전보다 발전효률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물관리를 짜고들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한 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보장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의약품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아래 각지 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까지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맡겨진 계획을 지난해에 비해 석달이나 앞당겨 끝내는데 기여한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는 앙양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련일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5일현재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5.3%로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성에서는 해마다 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달려온 여러 단위들이 올해에 수행해야 할 목표를 현실성있게 더 높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고려약공장들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함으로써 대중의 열의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성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장에 용약 뛰여들어 생산의 정상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었다.

국장 리영수, 기사장 전병일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안의 일군들은 함경북도, 량강도, 황해남도 등 고정담당한 전국의 여러 도들에 자주 나가 걸린 고리들을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각 도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감을 자각하고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열의밑에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황해북도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수많은 약초들을 차에 싣고 도안의 고려약공장들에 내려가 전진공급하여주었으며 평안남도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은 산하단위 종업원들속에 자주 들어가 그들의 로력적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전국의 많은 시(구역), 군고려약공장들에서는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과 도고려약생산관리국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지난 4월 중순까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발동발전기를 갖추어놓았다. 그리고 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갱신한데 이어 창고마다 약초들을 그쯘히 마련해놓고 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렸다.

강계고려약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회령고려약공장의 종업원들은 눈보라치는 북방의 차거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멸의 령도자옥을 남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을 안고 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9월말까지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과 지표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리고 백수십개의 고려약공장들이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60여개 고려약공장들이 15일현재 지표별계획을 완수하였다.

전국의 시(구역), 군고려약공장들에서는 년간계획수행을 위한 긴장한 전투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나가던 지난 8월과 9월에 수많은 너삼건위알약들을 추가생산하여 해당 지역 치료예방기관들에 보내줌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가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를 전례없는 의약품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농촌에 더 많은 전기를

강원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로 들끓는 농업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일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며 농사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농촌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송배전부 일군들은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업부문에 필요한 전력을 최우선 보장하도록 전력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송배전부에서는 일군들을 시, 군송배전소들에 내려보내여 낟알털기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탈곡기들의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선로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송배전부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에서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더 많은 전력을 농업부문에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모든 단위들에 과학적인 전력계량계측수단들을 도입하여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변전소들과 송전선로들에 대한 순회감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전기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많은 전력예비를 찾아내여 농업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상농광산에서 —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위대한 인민을 키운 어머니당에 영광을!

온 나라 강산에 격정의 파도가 일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구절,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 절절하신 음성이 지금 이 시각 천만의 심장에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헤쳐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뜻깊은 경축의 광장을 그리며 무수한 기적의 탑들을 쌓아왔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그 품에 삼가 드릴 최대의 영광과 감사의 인사를 고르고고른 이 나라 아들딸들이였다.

하건만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먼저 인민에게 인사를 보내시는 이 세상 류례없는 격정의 화폭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쌓으면 저 하늘끝에 닿을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이 10월에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안고 당을 따라 걸어온 70년 력사의 갈피갈피를 펼친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시대의 선구자, 참된 인간전형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자라난 불멸의 이야기를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로 정히 엮어 위대한 우리 당에 삼가 드린다.

1

인민!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이 제일먼저 찾은 부름이다.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한 우리 당이였다. 인민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가슴에 애국의 불, 혁명의 불을 지펴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70년이였다.

그 력사의 첫 기슭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인민 누구나 잊지 못해하는 한상의 사진문헌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령군의 한 농민과 담화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문헌이다.

제손으로 거둔 쌀 30가마니를 나라에 바치겠다고 찾아온 김제원농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애국미를 안고 온 사연과 해방을 맞은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참으로 가슴뭉클해하시였다.

해방후 몰라보게 달라진 인민의 성장이 그의 모습에 어려있고 온 나라에 태동하는 애국적열정이 그가 안고 온 애국미에 담겨져있었다.

그것이 못내 기쁘시여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새 조선 농민의 본분을 자각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친히 그를 댁으로 데리고 가시여 소박한 점심식사도 함께 나누시였다.

감격의 사연은 삽시에 방방곡곡으로 퍼져갔다. 수많은 농민들이 김제원의 뒤를 따라나섰다. 서해곡창과 분계연선마을에서, 동해바다가 농촌들에서 너도나도 달구지며 자동차며 기차의 차량에 쌀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왔다. 그 거세찬 흐름은 이 땅에 애국미헌납운동이라는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운동의 불길로 타번졌다.

인민의 새 나라에 벅찬 숨결을 더해주는 그 뜨거운 애국지성에 의하여 나라의 첫 종합대학이 일떠서고 혁명의 골간후비양성의 원종장인 만경대혁명학원의 만년초석이 다져지지 않았던가.

당창건의 첫 기슭에서부터 김제원과 같이 평범한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박한 진정을 애국이라는 숭고한 세계에 올려세우시고 그들의 작은 발걸음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은 큰걸음,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하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그 손길아래서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평강군의 한 농촌녀성이 단 석달만에 글을 깨치고 온 나라에 문맹퇴치운동을 호소한 선구자가 되였으며 강선땅의 이름없던 용해공도 천리마대고조의 기수로 자라나는 극적비약을 맞이하였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한명한명의 선구자, 새 인간전형을 키워 내세우실 때마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개척되였다.

좋은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항상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고 한명한명의 선구자를 찾아내실 때마다 더없는 기쁨에 넘치시던 심정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의 생활은 매일 매 시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여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론하고 생활을 론하고 미래를 론할 때이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가장 귀중한 벗으로, 동지로, 스승으로 지어 하늘로까지 여긴 위인들이 있었던가.

한평생 인민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운명도 미래도 함께 하는것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들께서만 찾으실수 있는 인생의 락이고 보람이였다.

인민과 무릎을 마주하는것을 그리도 좋아하시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그리도 크나큰 희열을 느끼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셔왔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근로대중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으며 력사의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도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승리적으로 헤쳐왔다.

잊을수 없는 주체88(1999)년, 정성옥선수가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소식으로 온 나라가 환희에 젖던 그때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성옥선수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김일성민족의 자랑,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온 영웅, 우리 조선의 훌륭한 딸, 김광철영웅의 위훈에 못지 않은 성과,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금방석에 앉혀놓아도 아깝지 않다! …

우승의 성과도 귀중하시였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박차며 힘차게 솟구치는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것이 무엇보다 장하고 대견하시였다.

쎄빌랴의 하늘가에 휘날린 공화국기발, 그것은 그 어떤 시련도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선군조선은 반드시 이기고야만다는것을 세계앞에 웨친 력사적선언이였다. 정성옥은 고난을 헤치며 승리를 향해 전속으로 달려나가는 조선의 기상, 영웅적인민의 상징이였다. 그 도도한 기상, 불굴의 투지로 돌진한다면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빛나는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할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정성옥영웅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하시는 한편 여러 분야의 선구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시여 전당이 그들처럼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눈비사나운 자강땅에서 세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기어이 승리의 새봄이 온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한 박옥희, 천길 지하막장에서도 수도 평양의 불빛을 가슴에 안고 충정의 순간순간을 수놓은 제대군인탄부 김유봉,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선구자적기치를 높이 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본보기투사 허용구,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조국의 푸른 숲에 순결한 량심을 묻어온 산림감독원 리응찬, 청춘도 한생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 깡그리 다 바친 참된 과학자 현영라!

조선혁명에 또 하나의 시대가 개척되였다.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고 두벌농사, 세벌농사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강자들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첨단의 개척자들, 누가 보건 말건 고귀한 땀과 열정을 바쳐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꾼 무수한 애국자들, 탐구의 배낭을 지고 협동벌로, 탄전으로, 들끓는 현실로 달려간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찾아 내세워주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과 엄복순군인가정을 비롯한 시대정신의 체현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 훌륭히 성장하였으며 백배, 천배로 다져진 인민의 힘으로 조선혁명은 다시 벅찬 활성기, 도약기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에 가장 성스럽고 빛나는 기념비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인민으로 자라난 천만군민의 모습이며 당을 따라 한길을 걸어온 그들의 자욱자욱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조선로동당 70년의 력사적총화, 그 백전백승의 근본비결을 알리는 10월의 메아리로 이 땅을 울리고 온 세계를 진감시킨다.

2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

그 부름은 삶의 원천과도 같이, 행복의 요람과도 같이 이 땅에 태여난 모든 선구자들의 한생의 메아리로 울린다.

선구자가 하나의 푸른 거목이라면 그 거목을 자래우는 토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손길이였다.

나어린 처녀선동원인 리신자동무가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 인간개조의 선구자, 붉은 선동원의 빛나는 삶을 받아안은 사연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주체50(1961)년 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동구역 리현리에 나가시여 당총회를 지도하시였다. 그때 나어린 선동원이였던 리신자동무는 맨 뒤줄에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회의도중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성동무들도 한번 토론해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연단에 나온 리신자동무는 뒤떨어진 반원들을 이끌어준 자기의 소박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그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동무가 바로 훌륭한 교양자라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범을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선동원이라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는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였던 리신자동무, 그의 크지 않은 소행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당의 호소에 선참으로 호응해나선 농촌처녀의 깨끗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읽으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를 그렇듯 높이 평가해주신것이였다.

리신자동무가 농촌리당총회의 작은 연단에서 영광의 삶을 받아안았다면 산골에서 나서자란 화전민의 딸인 길확실동무의 남다른 성장은 또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확실동무를 처음 아신것은 출판보도물을 통해서였다. 제사공장 조사공인 그가 자기 작업반을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고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자진하여 옮겨간 사실을 아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한 녀성로동자의 소행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정에 발휘되는 집단적혁신과 함께 또 하나의 거창한 시대적흐름인 인간개조사업의 태동을 감촉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기념보고대회의 휴식시간에 길확실동무를 곁으로 부르시여 인간개조의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그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인민대중속에서 훌륭한 모범의 싹을 찾아 내세우실 때마다 더욱 성장한 인민의 모습, 그와 함께 더 큰 보폭을 내짚을 조국의 전진을 내다보신 우리 수령님들이시였다.

선구자!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근한 혁명동지, 충직한 혁명전우의 또 다른 부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당과 혁명의 부름에 남먼저 화답해나선 선구자들과 인연을 맺으신 그날부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주시며 한생토록 품들여 키우시였다.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선구자중의 한사람인 진응원동무의 삶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선구자들사이의 혈연적뉴대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력사에 새기는 교과서이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주체45(1956)년 12월의 그날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일어나 당이 제시한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고 말씀드리였던 그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친근한 동지로 여기시였다.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의 력사적인 연단에서 강선제강소 진응원작업반원들이 처음으로 발기한 이 훌륭한 운동은 불과 1년반동안에 온 나라에 확대되였다고 하시며 평범한 용해공의 이름을 나라의 대진군운동과 결부시켜 불러주시고 그로부터 몇해후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가 진행될 때에는 주석단에 앉아있는 그를 불러 일으키시여 이 동무가 진응원동무라고,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든 동무라고 만장이 울리도록 직접 소개해주신 우리 수령님, 그가 어느 한 뜻깊은 연회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이 동무가 우리 나라의 천리마영웅이라고 하시며 외국의 벗들앞에도 내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정녕 그것은 당의 혁명전사, 시대의 선구자로 변함없는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고무해주고 떠밀어주시는 친어버이의 웅심깊은 진정이 아니였던가.

그 믿음과 사랑속에 진응원동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1970년대에는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강선속도의 창조자로 이름떨치였고 1980년대를 이어 1990년대에도 변함없이 쇠장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과학자, 영웅관리위원장, 영웅직로동계급으로 자라난 그 70년 력사속에 이름없는 벼육종학자였던 김상련동무의 성장의 자욱도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그가 우리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온 때로부터 영웅, 공로자로 되기까지 근 20년!

그 나날 실패와 고초도 많았던 그의 과학연구사업의 첫째가는 지지자, 보호자가 되시여 성공의 령마루에로 힘껏 떠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과 다심한 은정은 우리 당의 선구자력사의 갈피에 또 하나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이 땅의 선구자들의 스승이 되시고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동지가 되시여 세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렇듯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거세찬 대하마냥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해왔다.

1990년대초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인 정춘실동무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는 길에 만나보시였던 순박한 판매원처녀, 《우리 가정수첩》운영을 잘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그가 얼마전 자강도를 찾으신 수령님께 또다시 기쁨과 만족을 드린것이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인 그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를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정춘실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주체96(2007)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정춘실동무를 또다시 만나주시고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일혼살이 되여오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실하게 한길을 걸어온 그에게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녀성혁명가, 참된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세와 립장은 정춘실동무와 같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진응원, 정춘실동무들과 같이 우리 당력사에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의 선구자로 삶을 빛내인 애국자들이 끊임없이 태여난것은 혁명투쟁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중시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성장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목숨처럼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들께서 대고조에로 부르시면 거창한 투쟁의 불길이 되고 기술혁명과제를 내놓으시면 무궁무진한 창조의 샘, 지혜의 저수지가 되였으며 오직 하나 당의 뜻을 받드는 그 길에 일편단심의 자욱자욱을 한생토록 수놓아왔다.

뜨거운 정과 열, 헌신과 로고를 다해 자기들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우리 인민은 정녕 무엇을 드리였던가.

수십년전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장에서는 한 녀성천리마기수가 전체 참가자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천리마휘장을 달아드리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눈부신 금별메달도 아니고 천리마기수라면 누구나 다는 휘장을 달아드린 그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도 오늘 천리마를 타는구만.》

천리마휘장이 번쩍이는 대회참가자들을 정깊게 바라보시며 하신 그날의 음성은 지금도 메아리쳐와 우리 가슴을 흔든다.

물어보자, 사람들이여!

이 땅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오신분, 수천수만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장엄한 천리마대진군의 기수집단으로 되게 하신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 하늘같은 공적은 말없이 묻으시고 인민이 드린 너무도 작고 소박한 천리마휘장을 그렇듯 진정에 넘치시여 그처럼 무게있게 받으신 우리 수령님,

인민이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린 그날의 천리마휘장은 오늘도 눈부신 빛발로 력사의 진리를 새긴다.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야말로 붉은 당기발을 높이 드시고 천만대오를 이끄시여 혁명의 멀고 험한 길을 헤쳐오신 영웅중의 영웅, 선구자중의 위대한 선구자들이시다!

3

승리의 10월, 영광의 10월!

조선로동당을 따라 새 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이 뜻깊은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사기와 필승의 신심은 하늘에 닿았다.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솟구쳐 우리는 얼마나 멀리 달려왔고 이 땅에 이루어놓은 기적과 승리들은 또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것인가.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두에 높이 모시고 질풍같이 달려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영광의 길이 있다. 원수님의 품에서 더욱 백배해진 우리 조국의 무적의 힘, 더욱 몰라보게 달라진 인민의 눈부신 성장이 있다.

돌이켜보자. 우리 원수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갈 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뜨거운 믿음과 정에 넘쳐 바라보신것은 과연 누구들이였던가.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첫 해의 어느 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철저히 평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자신처럼 믿으시고 품들여 키우시였으며 하늘처럼 내세우신 인민, 바로 그 위대한 인민이였다.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지난해 11월 어느 아침 한 인민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너무도 뜻밖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진공뽐프를 타고 물보라를 세차게 흩날리며 쉴새없이 쏟아져내리는 물고기폭포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지는 물고기산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얼마나 훌륭한 풍경이요, 오늘 오지 않았으면 후회할번 했소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보기 드문 물고기대풍을 이룩했다는 소식이 그리도 기쁘고 반가우시여 머나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것이 아닌가.

이날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항상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당력사의 철리이다.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이다.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단위에나 어버이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있던가. 조국의 억년미래를 위해,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 한두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선구자가 되여야 하며 천리마가 아니라 만리마를 타야 한다는 철의 의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훈관철에 앞장선 인민군대를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것이였다.

천만이 선구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유훈관철의 장엄한 시대인 오늘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부르시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의 호소이고 온 나라에 쉬임없이 울려가시는 그이의 힘찬 발걸음의 우렁찬 메아리이다.

지난 4월 초당 25m의 칼바람이 부는 백두산정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뜨겁게 맞아주시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그 감격의 화폭속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력사의 돌풍도, 칼바람도 앞장에서 뚫고나가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라는 그이의 뜻깊은 당부가 깃들어있는것 아니던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한 인민군부대산하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 1116호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맡아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올해에 세차례나 찾으신 백두전구,

천만군민을 찾아 가고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유훈관철의 앞장에 세워주신 선구자집단, 애국자집단속에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한 우리의 영웅적청년건설자들도 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눈앞에 우러르며 수령결사옹위의 성새, 애국의 성새를 쌓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피와 땀, 위훈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를 안고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도 몸소 나오시여 10월의 찬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백두대산줄기가 찌렁찌렁 울리도록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10여년간에 걸치는 자연과의 간고한 대격전속에서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습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입니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입니다. …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흔들림없던 청년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이 격정의 눈물로 젖어들던 그 시각 인민은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의 영웅청년신화가 어떤 위대한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창조되는것인가를.

청년들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애국자, 영웅들로 키우시려 한생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은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더욱 활짝 꽃펴 이 땅에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유훈관철전에로 부르시며 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의 진두에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함을 모르는 그이의 힘과 열정은 어디서 솟구치고있는가.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공로를 세우고 표창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받은것이나 같습니다. 오만자루, 십만자루의 품을 들여 당대렬을 강화하고 애국충신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이 나의 임무이고 내가 인민들로부터 받는 표창입니다.》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이 나라 인민을 훌륭하고 억세게 키우고 그래서 우리 조국이 빛나고 세계의 첨단으로 돌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 따라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선구자로 투쟁의 기발을 들고 발구름높이 나아간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인가.

선구자!

이 부름과 함께 인민은 또 한번 강해지고있다.

빈터에서 천리마의 기상으로 나래쳐오른 인민, 시련의 언덕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솟구쳐 세계를 굽어본 인민이 또다시 힘차게 내달려 불과 4년도 못되는 기간에 웅근 하나의 시대, 하나의 세대와도 맞먹는 눈부신 변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70년의 언덕에서 또다시 신들메를 조이고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0월명절의 뜻깊은 연설을 마감하신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의 메아리가 뢰성처럼 울려온다.

우리 원수님께서 부르신 인민 만세의 웨침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가장 열렬한 축하이고 성스러운 표창이다. 천만군민이 세대와 년대를 이어 목숨처럼, 피줄처럼 간직하여야 할 당의 고귀한 믿음이며 사랑이다.

장장 70년을 그러했듯이 우리 당은 오늘도 인민을 믿고 위대한 리상의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젊음과 활력에 넘치는 조선로동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라도 달려갈 철석의 신념과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당과 령도자는 우리 인민 만세를 부르고 인민은 우리 당 만세, 우리 령도자 만세를 부르는 이 위대한 혼연일체를 누가 과연 깨뜨릴수 있으며 이 무진막강한 힘으로 못할 일이 정녕 그 무엇이랴.

온 나라 천만군민이 선구자가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겯고 나아가는 로동당의 힘, 선군조선의 힘은 멀지 않아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장엄하게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주체의 당기를 백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자

중심고리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

운 전 군 에 서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자랑을 안고 운전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낟알털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벼베기를 일정계획보다 한주일 앞당겨 끝낸데 이어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올해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하여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민 일군들의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격동속에 받아안은 일군들이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쌀로써 받들려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기세에 맞게 낟알털기전투를 작전하면서 중시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놓고 사색하던 군의 책임일군은 짚이는것이 있어 운하협동농장에 내려갔다. 한것은 군적으로 논면적이 많은 이 농장이 자체의 로력으로 지난해 낟알털기를 제일먼저 결속하였기때문이였다. 농장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 비결을 찾던 군의 책임일군은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설치하고 련결차를 두대씩 준비해놓는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벼단운반실적을 쑥 올릴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작업반별실태를 더 깊이 파헤쳐보았다. 그 과정에 낟알털기전투에서 틀어쥘 중심고리가 바로 군안의 모든 뜨락또르들의 운반량을 늘이고 자동부림장치를 설치하여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는데 있다는것을 찾아쥐게 되였다.

그런데 당장 군안의 모든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받아들일수는 없었다.

현실성있는 방도를 찾아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군의 책임일군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집체적지혜를 합친 결과는 좋았다. 뜨락또르의 적재함을 열고 그우에 나무틀을 놓은 상태에서 벼단을 쌓도록 하였다. 그런다음 벼단을 바줄로 감아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탈곡장에 도착하면 통채로 부리우게 하였다.

일군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심장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마다 자동부림장치를 받아들이고 련결차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또한 자동부림장치가 없는 뜨락또르들에는 운하협동농장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벼단운반량을 늘이고 머무름시간을 줄이도록 하였다.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쥐고 현실에 내려가 적극 떠밀어주는 군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오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모든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아침 첫 시간에 뜨락또르가 벼단을 싣기 위해 포전에 나갈 때 련결차를 두대씩 끌고나가도록 작업조직을 하였다. 뜨락또르가 벼단을 실은 련결차를 끌고 탈곡장에 갔다오는 사이면 남겨두었던 다른 련결차에 벼단을 가득 싣고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뜨락또르는 포전과 탈곡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이 련속 벼단을 실어나를수 있었다. 자동부림장치가 되여있지 않는 뜨락또르들에는 벼단을 실은 다음 바줄로 묶었다가 통채로 부리우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렇게 하니 귀중한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벼단운반을 확고히 앞세워 낟알털기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품종별특성에 맞게 낟알털기를 진행한것도 실적을 높일수 있는 좋은 방도의 하나였다.

올해 군에서는 50%이상의 논에 다수확품종의 벼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운반할 때 벼알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 벼단을 옮길 때마다 벼알이 떨어지는데 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적지 않은 량이였다. 현실은 낟알의 허실을 없애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따라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방도를 찾던 군일군들은 관해협동농장의 낟알털기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 농장에서는 탈곡장과 포전에서의 낟알털기를 배합한 결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귀중한 낟알을 허실하지 않고 털어내고있었다. 비결은 품종별특성을 고려하여 낟알털기를 한데 있었다. 실례로 벼알이 잘 떨어지는 품종은 포전에서 이동식탈곡기를 리용하고 그렇지 않은 품종은 탈곡장에서 종합탈곡기로 낟알털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벼단을 실어들이는 과정에 생기던 낟알허실을 막을수 있었으며 속도도 높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품종별특성에 맞게 이동식탈곡기와 종합탈곡기를 적극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리용하는데 맞게 2개의 수리조를 조직하고 농장별로 돌면서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결과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벼단운반을 확고히 앞세워 낟알털기기일을 앞당기면서도 허실을 막을수 있었다.

낟알털기성과는 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낟알털기전투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쥐고 완강하게 내밀어 실적을 올리는 운전군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고원군 군내협동농장에서

중시한 교대전 기대정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낟알털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많은 낟알이 허실됩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낟알인데 한알이라도 허실하여서는 안됩니다.》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명심한 고원군 군내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비결은 교대전 기대정비에 각별한 힘을 넣어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한데 있다.

농장일군들이 교대전 기대정비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낟알털기전투가 진행되던 어느날이였다.

작업반들의 낟알털기실적을 대비해보는 관리위원장 석금숙동무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도 앙양되여있고 조건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작업반별 낟알털기실적은 각이하였던것이다.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야 낟알허실을 막고 나라쌀독을 가득가득 채울수 있겠는데 일부 작업반들의 실태는 그렇지 못하였다.

관리위원장은 먼저 낟알털기전투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제1, 3작업반으로 나가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에 그 작업반들에서 기대정비에 특별히 힘을 넣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작업이 끝나기 20분전에 기대정비를 말끔히 하여 다음조에 넘겨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진행하고있었다. 그것은 탈곡기의 상태는 교대하기 전 작업조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것만큼 기대정비를 잘하여 다음조에 넘겨주어야 낟알털기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결과 작업 전기간 사소한 기대고장도 없이 탈곡기를 만가동하여 낟알털기실적을 높이고있었다.

이것은 교대전 기대정비가 탈곡기의 만가동보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있었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즉시 모든 작업반들에 이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에서는 초급일군들이 규률을 철저히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총화사업도 따라세웠다.

초급일군들의 모임에서 기대정비를 잘하여 낟알털기에서 앞장선 작업반들과 기대정비를 소홀히 하여 뒤떨어진 작업반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가면서 분석해주니 참가자들모두가 큰 자극을 받았다.

농장에서는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렸다. 피대, 베아링을 비롯한 중요부속품외에도 치차와 나사들도 충분히 마련해놓도록 하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면서 걸린 문제들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 과정에 모든 작업반들에는 교대전 기대정비를 어길수 없는 중요한 공정으로 여기고 집행해나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특히 기대공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졌다.

설비점검을 한번 해도 미흡한데가 있을세라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갔다.

결과 모든 농장원들속에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속에 집단주의정신이 적극 발양되여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열흘이상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될수 있었다.

박 영 진

개성시 풍덕협동농장에서

태양빛전지로 탈곡기를 돌린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개성시 풍덕협동농장에서 태양빛에네르기에 의한 소형탈곡기를 리용하여 낟알털기를 다그치고있다.

순수 태양빛전지의 전원으로 가동시킬수 있게 되여있는 이 소형탈곡기는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에네르기만을 리용하여 낟알을 털어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곳 농장원들은 이야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그 리용률을 적극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에서 이 탈곡기를 리용해본데 의하면 종전의 소형탈곡기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농장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소형탈곡기인 경우 원동기를 돌리는데 적지 않은 연유를 쓰고있다. 벼 1t을 털어내는데 2kg정도의 연유가 든다고 볼 때 한개 농장의 벼를 다 털어내는데 소비되는 연유는 적은 량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아들인 이 탈곡기는 연유를 전혀 쓰지 않기때문에 원가를 크게 줄이면서도 낟알털기를 할수 있다.

리용에서도 편리하다. 개인날에는 태양빛전지관을 통하여 생산되는 전기로 직접 탈곡기를 가동시키고 흐린 날에는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를 리용하기때문에 임의의 포전에서 조건에 관계없이 탈곡기를 돌릴수 있다.

낟알 털어내는 량은 시간당 수백kg으로서 종전의 소형탈곡기에 못지 않다. 탈곡기를 돌리는데 농장원 몇명이면 충분하므로 긴장한 로력문제도 풀수 있다.

이 탈곡기는 또한 소음이 적기때문에 농장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다.

만드는 품도 얼마 들지 않는다. 태양빛전지관과 축전지, 직류전동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만들수 있다.

제3작업반 농장원들은 이 탈곡기를 돌리면서부터 낟알털기실적이 부쩍 올라갔다고 하면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체험을 통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말하고있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앞으로 해당 단위의 도움밑에 태양빛에네르기를 리용한 탈곡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열의안고 낟알털기를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농장에서 —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낟알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그 날 계 획 은 그 날 로

성천군 대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농장원들이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경축한 기세드높이 당면한 낟알털기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남먼저 새벽문을 열고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작업반초급일군들이 한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낟알털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며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애써 지은 낟알을 허실하지 않으면서도 그날계획은 그날로 끝낼수 있도록 낟알털기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우선 농장원들의 나이와 육체적조건 등을 고려하여 낟알털기교대 및 작업조직을 실정에 맞게 하였다. 또한 늘 앞채를 메고 전투현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갔다.

뜻깊은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할 드높은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농장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교대당 낟알털기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높이 세운 낟알털기 일정계획은 어김없이 수행되고있다.

결과 작업반은 낟알털기에서 농장은 물론 군적으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조국수호의 병기창과도 같은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열의에 의하여 작업반의 낟알털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오르고있다.

그럴수록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애써 지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보다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동군 읍협동농장 제9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때 성과가 크다. 대동군 읍협동농장 제9작업반 초급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며칠전 어느날이였다. 이른새벽 남먼저 포전으로 달려나온 작업반장 박경찬동무는 흐뭇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5일만에 군적으로 제일먼저 벼가을을 끝냈던것이다.

그럴수록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맹렬한 돌격전을 벌려 낟알털기를 다그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이달말까지 낟알털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작업반탈곡장과 가까운 포전에 있는 벼단만 실어들여 낟알털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포전에서 낟알을 터는것이였다.

포전에서의 낟알털기는 지난 시기에 비하여 로력과 기름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낟알털기속도를 높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였다.

뿐만아니라 낟알털기과정에 나오는 북데기로 거름을 생산할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반장의 머리속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기상기후조건과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때 성과가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실지로 올해 낟알털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었다. 더구나 작업반포전은 비교적 낮은 곳에 있었다.

따라서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못하고 고이기 쉬웠으며 물도랑을 째주어도 효과가 적었다. 이런 곳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가 들어가기 힘든것은 물론 낟알털기를 진행하는데도 아주 불리하였다. 그렇다고 포전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다. 포전마다 어느 정도 높이차이가 있기마련이다. 그런것만큼 벼단을 지대가 비교적 높은 포전에 군데군데 모아놓고 낟알털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그렇게 하면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움직이는데도 편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작업조건도 유리하였다.

작업반장은 일단 방도가 나지자 지체없이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포전상태를 손금보듯 잘 알고있는 그였지만 현장을 다시 밟아보며 벼단을 옮겨놓을 위치들을 확정하였다. 앞채를 메고나선 작업반장의 뒤를 따라 모두가 떨쳐나섰다. 어제날의 실농군들이였던 로인들도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하면서 전투장에 나와 일손을 도와나섰다.

결과 벼단을 옮기는 작업이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고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낟알털기를 내밀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일념으로 나무모들을 튼튼히 키워내고있다. — 허천군산림경영소에서 — 본사기자 찍음

더 많은 명주실을 생산

희천제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쁨을 안고 희천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명주실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공장의 선견, 자견, 조사, 재조작업반들에서 기대들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매일 명주실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주체98(2009)년 10월 24일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지배인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7월에 자견작업반의 고치삶기공정에 자동고치계량장치, 자동고치공급장치를 창안도입한데 이어 조사작업반의 실뽑는 공정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고치의 실머리찾기효률과 실풀림률을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명주실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주실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선견작업반 로동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낱면제거기를 비롯한 고치선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고치선별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견작업반 로동자들은 삶은 고치의 질이자 명주실의 질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진공전처리설비, 고치삶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면서 품질에 따르는 고치삶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명주실생산의 중요공정을 지켜선 조사작업반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여러기대맡아보기운동을 벌려 명주실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을 높여주고있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명주실의 질과 생산실적은 계속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조사작업반에 여러대의 현대적인 조사설비들을 갖추어놓고 명주실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새겨진 값높은 삶의 자욱

평양시의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새겨진 우리 녀성들의 값높은 삶의 자욱이 또다시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다.

평양시안의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은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기간에 힘있는 경제선동과 녀맹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여러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함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훌륭히 꾸리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시안의 녀맹조직들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평양시녀맹위원회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건설자들과 녀맹돌격대원들의 열의를 총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시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건설 전기간 호소성과 감화력이 큰 5 500여차의 화선식정치사업과 700여차의 경제선동활동을 기동성있게 진행하여 건설장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였다.

락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선교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의 녀맹조직들과 일군들은 건설장마다에 수많은 붉은기와 녀맹돌격대기발을 꽂아놓고 《단숨에》, 《결사관철》과 같은 힘있는 표어들과 특색있는 속보판들을 전개하여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또한 녀맹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특색있게 진행하여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락랑구역녀맹위원장 김옥화동무와 선교구역 룡곡2동 초급녀맹위원장 김능숙동무를 비롯한 녀맹일군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는 내용의 화선식정치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건설자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대동강구역 사곡2동과 락랑구역 두단동의 녀맹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당정책으로 일관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도 군인건설자들의 친부모, 친누이의 다심한 정도 안겨주어 그들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게 하였다.

시안의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녀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70돐까지 건설을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락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녀맹위원회들에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녀맹돌격대선포모임을 진행한 때로부터 건설이 끝날 때까지 5만㎥의 자갈 및 흔석운반을 비롯한 수많은 일감을 맡아 해제끼였다.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녀맹위원회들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공사 2단계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전기간 녀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8만여㎥의 각종 물동량을 운반하였으며 잔디심기와 비배관리, 지대정리 등 많은 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인민봉사총국 녀맹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낼 드높은 열의밑에 지난 3월부터 봉사기관의 특성에 맞게 녀맹원들로 야간돌격대를 조직하여 매일 많은 녀맹원들이 전투현장에 달려나와 로력적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락랑구역녀맹위원회 부원 유은정동무는 구역녀맹돌격대참모장으로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구역녀맹돌격대가 전투과제를 매일 160%이상 넘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녀맹돌격대활동 전기간 대대가 일잘하는 대대,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불리우도록 하였다.

선교구역녀맹위원회 부원 안향순동무는 100여명의 녀맹원들을 녀맹돌격대활동에 망라시키고 그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였으며 앞선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드세게 벌려 대대가 작업과제를 매일 200%이상 초과수행하도록 하였다.

락랑구역 정백2동 초급녀맹위원장 우정숙동무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녀맹돌격대원들이 과학기술전당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자기 단위에 맡겨진 작업과제를 매일 150%로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시안의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자기들의 지성어린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고 여러가지 좋은 일도 적극 찾아 하여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한껏 높여주었다.

평천구역, 락랑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안의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건설자들을 도와 많은 작업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각종 식료품들과 음료, 생활필수품, 작업공구를 비롯한 지원물자들도 성의껏 보내주어 그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앞장에서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옥류관과 창광봉사관리국, 평양면옥 초급녀맹위원회를 비롯한 인민봉사총국 녀맹위원회안의 녀맹조직들에서도 봉사활동을 끝마치고 야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원호물자들을 안겨주어 건설장을 흥성이게 하였다.

평양면옥 초급녀맹위원회 김은미, 개선내포국집 오영애동무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밤낮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는 군인건설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락랑구역 승리3동 박영옥, 류춘옥동무들을 비롯한 18명의 녀맹원들은 녀맹돌격대활동을 벌리면서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의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락랑구역 락랑1동 강선희동무는 녀맹돌격대활동과정에 군인건설자들에게 많은 샘물을 보장해주어 그들로부터 《샘물어머니》로 정답게 불리웠으며 선교구역 웃메동 녀맹원 리옥희동무는 지난 3월부터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군인건설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편의봉사를 잘하여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락랑구역 승리2동 녀맹원 전명실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녀맹원들과 충성3동 녀맹원 야문경동무도 녀맹돌격대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건설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선교구역 산업1동 녀맹원 한지화, 선교구역 등메3동 녀맹원 강금숙동무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장에 달려나와 건설자들의 신발을 성의껏 수리해주었으며 대동강구역 청류3동 녀맹원 림정옥동무는 건설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어느 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주었다.

이밖에도 락랑구역 통일거리2동 녀맹원 리금숙, 평천구역 봉학동 녀맹원 신춘희, 대동강구역 문흥2동 녀맹원 김순희, 옥류2동 녀맹원 최명숙, 선교구역 룡곡2동 녀맹원 최성옥, 대흥동 녀맹원 전옥선, 창광봉사관리국 녀맹원 리향숙동무를 비롯한 시안의 많은 녀맹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자랑찬 위훈을 새기였다.

시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속에서 발휘된 높은 정신세계와 고결한 미풍은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우리 녀성들의 백옥같은 충정심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비료증산의 동음속에 울려오는 삶의 메아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지배인이였던 김명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는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갈피마다에는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높은 실적으로 받들어온 일군들의 자욱자욱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얼마전까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사업하다가 순직한 김명철동무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김명철동무는 주체102(2013)년 1월부터 현직에서 사업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의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생산에 이바지하는 실로 많은 일을 해놓고 우리곁을 떠나갔다.

그의 고결한 삶은 당의 신임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어떤 실력과 실천력을 발휘해야 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떤 불같은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나의 위치—화선!

이 나라 공민 누구에게나 조국앞에 지닌 책임감이 있다. 한 직종에서 수십년간 일한 로동자의 가슴속에도 그 책임감이 소중히 간직되여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과학자의 신념에도 바로 그 책임감이 비껴있다. 더우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선을 맡은 일군의 책임감은 보통공민과 달라야 한다. 그것은 실천이기 전에 당을 받드는 량심이고 의리여야 한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풀고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군 한 일군이였습니다.》

이것은 그와 련합기업소에서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공무보수부문 초급당일군인 김영철동무의 추억만이 아니였다. 비료생산현장에서 만난 로동자들이며 보수부문 기능공들, 련합기업소 기술자들도 지배인에 대한 취재길에 오른 우리에게 이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그중에서도 두해전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일떠세울때의 지배인의 모습을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모두가 잊지 못해하고있다.

온 나라에 온실남새농사열풍을 일으키려는 당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업은 비료생산과 함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거창한 투쟁이였다.

수십m높이의 기둥을 여러개나 세우고 수만장의 블로크를 축조한 공간에서는 여러대의 화차분에 해당한 덩지큰 설비가 조립되고 있었다.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리는 남흥로동계급, 그 대오의 앞장에 김명철동무가 서있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분초도 쪼개쓰고 누구나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며 신발벗을 사이도 없이 일했다는 그 격렬한 투쟁은 지붕씌우기작업에 들어서서 절정을 이루었다.

무게가 10t을 훨씬 넘는 지붕을 종전의 방법으로 조립하면 나흘이 걸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흥사람들의 배짱에 맞지 않았다.

《저 지붕을 땅에서 조립하여 단번에 올려놓읍시다.》

김명철동무의 이 호소는 달리는 살수 없는 남흥사람들의 선택이였다. 지상확대식으로 조립된 지붕을 기중기차로 올리려는 순간이였다. 지붕이 놓이게 될 30m나 되는 네 기둥중 한 기둥으로 오르려는 일군이 있었다. 김명철동무였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있던 시각 가장 위험한 곳에 남먼저 뛰여들려는 지배인을 다른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에워싸고 만류했다.

《위험합니다. 지배인동지는 밑에서 전투를 지휘해주십시오.》

그들을 물러보며 김명철동무는 말했다.

《동무들, 당앞에 결의다진 생산공정건설을 빨리 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하는것이 이 마지막작업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저우에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한m 또 한m 그는 기둥을 타고 올랐다. 지배인과 함께 공무보수부문 일군들도 다른 기둥들을 타고 올랐다. 아찔한 공중에서 지배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대형지붕이 통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강철구조물이 아니였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맡은 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불타는 남흥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과도 같았다.

나흘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지붕씌우기작업은 단 하루동안에 결속되였다. 남흥로동계급은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고 주체102(2013)년 6월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회의나 하고 이따금 한번씩 현장들에 내려가 실적을 알아보는 일군이 아니였다.

《지배인동지는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전투전기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혈된 눈을 애써 뜨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현장 한쪽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지배인동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공무보수부문의 어느 한 로동자의 이야기, 바로 그속에 오늘도 대중의 기억속에 남은 참된 일군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두해전 3월 봉천탄광의 어느 한 막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지배인동지가 여기까지 들어와 꼭 탄을 캐야 합니까?》

《석탄산이 없이야 어떻게 비료산을 생각할수 있겠소. 오늘 여기에 와서 한바탕 땀을 흘려보니 탄부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주의농촌들에 자기들이 생산한 비료를 가득가득 실어보낼 때마다 남흥로동계급이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는 고마운 탄부들이였다.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남흥로동계급의 지원물자와 전투적인사를 안고 막장으로 찾아온 김명철동무에게 탄부들은 어떻게 말했던가.

《석탄은 걱정말고 비료만 팡팡 생산해주십시오. 이 검은 석탄들을 모두 새하얀 비료로 만들어 달란말입니다. 하하하…》

화선에서 뜨겁게 오고간 목소리, 그것은 석탄전선과 비료전선이 또 한번 뜨겁게 피줄을 잇는 소리였다.

화선, 김명철동무는 이 두 글자를 인생의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살았다. 나라의 비료생산을 당과 국가앞에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전기문제가 제기되면 두팔걷고 발전소들에로 달려갔고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문제가 제기되면 기계공장들에로 향하던 불같은 인간, 이것이 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뇌리에 지울수 없이 새겨진 김명철동무의 모습이였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난해 2월 김명철동무는 어느 한 출장길에서 뜻밖에도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였다. 함께 출장길에 올랐던 일군들은 그 사실앞에서 깜짝 놀랐다.

항상 패기와 정열에 넘쳐 지칠줄 모르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일군, 그렇게도 강의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다니?!…

병원측에서는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명철동무는 아무일 없는듯 너무도 태연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다면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뿐이였다. 자기 한몸보다 나라의 비료산부터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 그것은 김명철동무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무섭게 일어서서 내달리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련합기업소에는 지배인이 불치의 병을 앓고있었다는것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오히려 그전보다 생산현장들을 더 자주 밟고 련관부문, 련관단위들을 찾아 더 힘찬 발걸음을 내짚는 지배인을 보며 정열의 인간이라고 감탄만 했지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었다.

지난해 10월 압축기부속품가공을 위해 룡성기계련합기업소로 떠나려는 김명철동무를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만류했다.

《지배인동무, 어쩌자고 이러오. 그 몸으론 절대로 안돼. 수술을 받고 한주일만에 퇴원해서 의사들이 《항의》를 들이대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무슨 출장을 떠나겠다는거요. 다른 동무들도 있는데 동무가 꼭 가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책임비서동지, 난 지배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 자나깨나 가슴속에 품고있는 한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당이 어렵고 힘든 혁명임무를 구상하며 전투대오를 편성할 때 그 첫자리에 불러세울수 있는 그런 당원이 되고싶은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

달리는 살수 없는 일군이였다. 달리는 갈수 없는 길이였다.

김명철동무는 흔연히 웃음지으며 차에 올랐다. 굴지의 대규모기계제작기지 룡성을 찾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허우대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것을 룡성사람들은 알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보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졌다.

어찌 알수 있었으랴. 그때 김명철동무가 아픔이 너무도 심해 차안에서 진땀을 흘리며 무섭게 몸부림쳤다는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픔이 심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배인이야기가 나오자 눈굽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선뜻 취재수첩에 적을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날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수 없을 때 그것은 그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잃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앉음이 없이 억세게 일어설 때 그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가 걸어온 지난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깡그리 불태워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그는 지난 4월 기능성3겹온실박막원료첨가제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연구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식을줄 모르는 심장을 지닌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 불치의 병이 생명을 좀먹어도 대오와 함께 살고 대오와 함께 전진하던 김명철동무에게도 끝내 최후의 시각은 닥쳐오고야말았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하반신마비까지 겹쳐 억대우같던 사나이가 쓰러지게 되였다.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을 위한 대보수가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었다. 김명철동무는 또다시 울려퍼질 증산의 동음속에 자기의 목소리도 합치고싶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피와 땀을 비료생산을 위해 바치고싶었다.

지난 9월 어느날 련합기업소 공무생산과의 한 공정원으로부터 공구가 부족하여 비료생산공정보수기일이 연장될 정황이 조성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명철동무는 그에게 적지 않은 자금을 꺼내놓았다. 병치료에 쓰라고 일가친척들이 모아준것이였다. 그것으로 부족되는 공구를 해결해보라고 지배인이 이야기할 때 그는 펄쩍 뛰였다. 하지만 김명철동무의 부탁은 너무도 절절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수 있겠소. 이것으로 나의 피땀을 대신할수 있다면, 비료생산공정보수전투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다면 난 더 바랄것이 없소.》

《지배인동지!…》

지난 9월 26일, 순간순간 당정책결사관철로 높뛰던 김명철동무의 심장은 50살이라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고동을 멈추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쓰러지고말았다고, 나의 생을 얼마간이라도 더 연장해줄수는 없는가고 나어린 간호원처녀에게 눈물을 머금고 호소했다는 김명철동무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넋으로 뜨겁게 그러안고 간 남흥의 대화학공업기지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하얀 비료가 쏟아지고있다.

비료, 그것은 땅에 묻힌다. 자기 한몸을 깡그리 녹여 땅에 자양분을 주고 열매를 떠받든다.

그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지만 사회주의대지에 뿌린 그의 피와 땀은 나날이 풍요해지는 이 땅과 더불어 길이 남을것이다.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김명철동무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고 그의 유해를 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범한 로동자였던 자기를 걸음걸음 키워 한개 련합기업소를 책임진 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신임에 김명철동무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였다.

그는 인민경제 한개 생산단위를 책임진 일군들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조선로동당원들에게 당원은 수령과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또 하나의 고귀한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9월 28일 김명철동무의 유해가 렬사릉에 안치되였다. 그의 아들 김정혁동무가 아버지처럼 한생 당에 충직한 전사로 살며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다.

김명철동무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그가 못다 걸은 길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남흥사람들의 대오속에 있다. 그 힘찬 발걸음소리와 함께 비료증산의 동음은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명홍숙
본사기자 김충성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재로씨야동포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사랑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조국방문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과 생일상이 사회주의조국에서 아흔번째 생일을 맞는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에게 26일에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일심동포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은정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영웅 안동수와 그 유가족과 맺으신 숭고한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가족모두를 한품에 따뜻이 안아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정이 뜨겁게 어린 선물과 생일상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정일심동포는 감격에 목이 메여 인생만년에 자기처럼 행복한 늙은이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정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남편을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이국땅에 살고있는 가족모두를 한품에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이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일심동포와 친척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위업실현에 한몸 다 바쳐나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 개막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부문 7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개발한 500여건의 프로그람이 출품되였다.

17개의 전시분과와 2개의 경연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지 대학, 학교들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람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게 된다.

개막식이 2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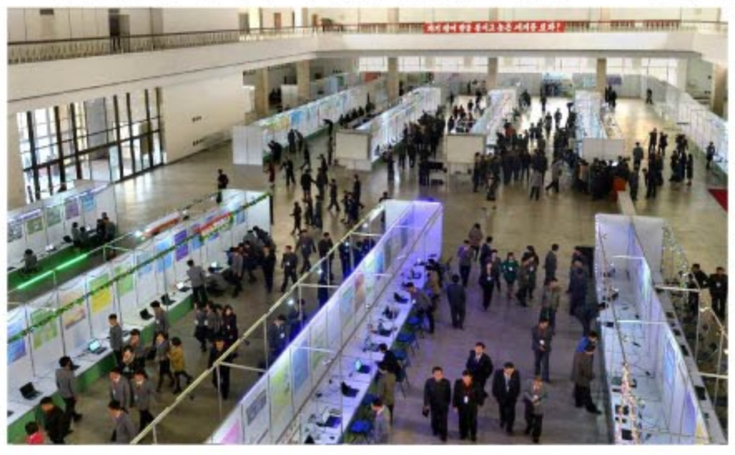
관계부문 일군들, 프로그람들을 출품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시회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교육부문의 수많은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이 지난 1년간 교육사업에서 실용가치가 큰 수많은 프로그람들을 개발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시회가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뜨거운 진정과 헌신으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몇해전 여름 평양으로 달리는 렬차에 오른 려객들중에는 평안북도인민병원 비뇨기외과 의사 김성호동무도 있었다.

렬차의 창가로는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언뜻언뜻 비껴들며 려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지만 그만은 왜 서인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있은 일을 생각하고있었다.

몇달전 병원에는 구장군에서 온 한 로동자가 입원하였다. 벌써 몇번째 뇨도협착증치료를 위한 외과적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나빴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집단의 방조속에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날 저녁 호실에 들어선 그는 치료가 잘되여 기뻐할줄 알았던 환자의 얼굴색이 그리 밝지 못한것을 보고 사연을 물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리해가 되였다.

뜻밖의 일로 뇨도협착증에 걸린 몇해전부터 환자는 해마다 멀리에 있는 이곳에 찾아와 수술치료를 받군 하였다. 병이 자주 도졌기때문이였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고비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치료방법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환자의 병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환자의 호실을 나선 김성호동무는 그때부터 문헌자료작업을 꾸준히 하였다. 때로는 의학대학교원들과 병원의 의료일군들을 자주 만나 열띤 토론을 벌리기도 하였다.

비뇨기외과부문의 다른 질병환자들에 비하면 구장군의 로동자가 앓고있는 질병의 환자들은 한해치고도 얼마 되지 않았다. 생명을 다투는 질병도 아니여서 스쳐보낼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주민들중에 단 한명의 얼굴에 비낀 사소한 그늘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으로 김성호동무는 중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서인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그는 평양으로 달리는 렬차에 올랐던것이다. …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도서들을 펼치며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는 착상의 실머리를 드디여 찾아냈다.

김성호동무는 지체없이 도인민병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벌려 두해후 병원에 또다시 찾아온 구장군에서 사는 로동자의 병을 기적적으로 완치시켰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것이라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며 그 로동자는 자본주의사회같으면 평범한 근로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이런 뜨거운 진정과 헌신을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였다고 한다.

창성군, 삭주군을 비롯한 산골군들에서 해마다 병원에 찾아오느라면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우리 당이 키운 참된 의료일군들을 만나 이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되였다고 말하는 도안의 주민들의 반영을 새기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사는 거리와 일터들마다에는 크고작은 일감이 따로 있다해도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의료사업에서는 정녕 크고작은 일감이 따로 없는것이라고.

그후 비뇨기외과 부과장으로 임명된 김성호동무는 병원의 일군들인 전성철, 김금철, 리종일동무들과 과의료집단의 방조속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겹친 뇨도협착증을 단 한번의 치료로써 완쾌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방법을 내놓았다.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종전에 비해 아픔이 적으면서도 회복기일이 짧을뿐아니라 재발률이 없는 치료방법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천만자식을 따뜻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하였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뜨거운 동포애에 의하여 마련된 이번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외세에 의한 분렬의 고통을 끝내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강렬하며 그 누구도 이것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도착

썸깨우 씨라훵 안전보위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와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이날 인민보안부에서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을 위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대표단 귀국

하르트무트 쿄쉬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대표단이 2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체스꼬국경절 97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개막

체스꼬공화국 국경절 97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주조 체스꼬공화국대사관, 조선체스꼬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2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우리 나라와 체스꼬기발들이 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개막식에는 류경일 조선체스꼬친선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과 밀란 홈쩨이 체스꼬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연회 마련

유엔의 날에 즈음하여 타판 미슈라 주조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2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주조 국제기구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웰남대사관 성원들 미곡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팜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6일 사리원시 조선웰남친선 미곡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미곡혁명사적관을 참관하면서 농장에 깃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영광의 땅에서 사는 긍지안고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뜻깊은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해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벼탈곡을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날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환경보호사업은 우리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영원히 공해를 모르는 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내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풍치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깨끗하고 문명한 생활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시고 내 나라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활짝 펼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덮게 되새겨보게 되는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환경보호사업은 마땅히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여기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부문에나 다 그러하듯이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자욱자욱은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뜨겁고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앞으로 해방된 조국땅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을 하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공해를 미리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일관하게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를 공해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가장 훌륭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살도록 하시려 마음써오신 수많은 사실들중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주체78(1989)년 8월 함경남도책임일군협의회를 몸소 지도하시면서 공해방지를 위한 일군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라고 인민정권을 세우고 간부들도 임명하였다고, 공해방지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면 그런 인민정권과 간부는 필요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자책과 함께 가슴속깊이에서 북받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서 강철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여도 그것을 로동자들의 생명과 절대로 바꿀수 없다시며 하나밖에 없던 성진제강소(당시) 원철로를 통채로 하늘로 날려보내도록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던가.

우리 제도하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애쓰는것도 결국은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혁명령도의 전기간 생산과 건설에 앞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부터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공해산업을 없애라!》, 《푸른 하늘을 내놓으라!》고 웨치며 공해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이처럼 뜨거운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가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해를 막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내놓으신 사연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주체54(1965)년 여름 어느 한 화학공장확장건설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당면한 확장공사에 급급한 나머지 공장굴뚝에서 새여나가는 연기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우리야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가들이 아닌가, 자본가들이야 돈벌이가 잘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대기오염정도가 설사 0.001%라고 해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공해 《0》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공해를 가리켜 《악몽의 화신》, 《핵무기에 비길만 한 인류의 적》이라고 비명을 올리고있을 때 인민들에게 공해 《0》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인민들의 건강보호, 생명보호를 국사중의 국사로,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며 이를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위인의 무한한 인민사랑이 어려있었다.

어찌 이뿐만이랴.

생산조건이 불비하고 공해방지대책이 잘 세워지지 못한 해주시의 어느 한 제련소를 폭파해버릴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에도, 남포시의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들을 없애도록 해주신 단호한 조치에도 우리 인민이 사회정치생활과 물질생활분야에서뿐아니라 가장 훌륭한 자연환경속에서 만복을 누리며 잘살게 하시려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령도사가 집대성되여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환경보호법이 채택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 희한한 전변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환경보호부문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사람들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온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인민들이 살기 좋은 락원에서 대를 이어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귀한 한평생을 깡그리 바쳐오신 수령님들의 그 념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강철웅

스스로 걷는 탐구의 길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 연구사들

나라의 환경보호사업을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 채굴환경공학강좌의 연구사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경보호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얼마전 연구사들은 평양종합인쇄공장의 자력갱생직장에서 인쇄용기자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을 꾸리면서 산성가스제거와 관련한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에 부딪쳐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산성가스가 루출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물론 주변인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현장으로 즉시 달려나간 이들은 새로 놓게 될 생산공정들의 흐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보았다. 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 이들은 인쇄공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하루빨리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을 엿볼수 있었다.

로동자들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마음은 연구사들의 가슴속에 불을 달아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야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단위가 아닙니까.》

《우린 연구사동무들을 믿습니다.》…

직장장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이 말속에 연구사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이에 생산현장으로 일터를 옮긴 연구사들은 우선 가스흡수제개발에 달라붙었다. 우리의 원료에 기초하면서도 어디서나 쉽게 얻을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필요하였다.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재료를 넣은 배낭을 메고다니며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였다.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나날에 연구사들은 마침내 가스흡수에 적합한 재료를 찾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사들은 지체없이 가스흡수제에 의한 가스정화원리와 정화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쳐나갔다.

연구사들의 이런 적극적인 투쟁으로 하여 직장에는 짧은 기간에 산성가스정화공정이 새롭게 꾸려져 종업원들은 물론 주변의 인민들에게도 자그마한 불편이 없이 기자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련이어 연구사들은 가스흡수제를 현장에서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설비도 로동자들이 간편하게 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임의의 시간에,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가스흡수제를 생산할수 있는 이 설비는 실천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무엇을 하나 연구하고 실천해도 로동자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자.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사는 연구사들이기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실리가 큰 산성가스정화공정을 완성하여 기자재생산을 다그치는데 크게 한몫할수 있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양종합인쇄공장의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 30대의 연구사 김강덕동무에게 나라에서는 그의 과학적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박사학위를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김경철

강하천수질을 개선하려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강하천의 수질오염은 생활오수와 공업폐수들이 수역에 흘러들어 수질이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정상수질기준보다 낮아져 사람들이 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진 상태를 말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염된 강의 웃쪽에 양수기로 오염되지 않은 강의 물을 퍼올려 흐름속도를 높여주는 강제순환식수질정화방법과 습지대로 인공적인 물길을 내여 정화하는 방법, 강바닥을 파서 정화하는 방법들을 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에네르기소비가 많고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수질회복기간이 길고 효과가 높지 못하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강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있다.

먼저 오염된 강물의 용존산소량을 빨리 높이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강물은 오염되면 물속에서 산소가 소비되면서 혐기상태가 조성되게 된다.

이런 강하천구간에서는 호기성미생물들에 의하여 유기오염물들이 분해되던 자연적인 수질정화작용이 파괴되여 강물은 부패변질되게 되고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염된 강물속의 호기성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강에 산소를 불어넣어 강물속의 용존산소량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오염된 강물을 빨리 정화하는 방법이 널리 도입되고있다.

다음으로 강물속의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한 식물부유체수질정화기술을 받아들이고있다.

식물부유체수질정화기술은 물살이식물들을 심은 일정한 면적의 부유체를 오염된 강하천구간에 띄워 강물속의 질소와 린과 같은 영양염류들과 오염물질들을 흡수하거나 흡착하여 제거하는 기술이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측정하는 설비들을 받아들이고있다.

이 설비들은 미생물들의 이동속도와 개체들사이의 거리, 개체수 등을 실시간감시측정하여 여러가지 지표들을 기준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질상태를 알아낸다고 한다.

본사기자

년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안주뽐프공장에서

안주뽐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 뽐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들은 과학기술전당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각종 규격의 뽐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어 총공격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년초부터 뽐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것과 함께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었다.

년간 뽐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목표를 내세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주물품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용해시간단축으로 주물품생산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제단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청년가공직장의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정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가공품의 질을 높이였다.

청년조립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제판 및 가공품들이 넘어오는데 맞게 일손에 불바람을 일으켜 높은 조립속도를 보장하였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심건조로건설과 가열로개조를 위한 설계를 앞세우고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종전에 비하여 뽐프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힘찬 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로 빛내이려는 일념안고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고향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흥원군 동상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업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서자란 조국땅을 제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이 바로 애국주의이다.》

흥원군 동상협동농장 제3작업반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킨 이곳 농장원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깐진 일본새를 두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동상협동농장의 제3작업반은 다른 작업반들보다 조건이 불리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업반은 농장의 본보기작업반,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리소재지에서 서끌천지류인 골개물을 따라 얼마간 올라가느라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아담한 작업반마을이 눈앞에 펼쳐진다.

평탄하게 잘 닦아놓은 길, 그 량켠에 활짝 핀 코스모스와 가로수들, 즐비하게 일떠선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 산뜻하게 꾸려진 농업과학기술전실과 탈곡장의 강냉이창자들, 농기구창고들, 비육분조의 집집승우리들…

정말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향토애, 조국애가 진하게 어려있는 사회주의문화농촌마을이다.

여기에는 자기 고장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갈 한마음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온 작업반장 리원모동무를 비롯한 이곳 농장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리원모동무는 분조장으로, 작업반장으로 사업하면서 농장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고향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갔다. 실개천기슭에 수백m의 제방을 일매지게 쌓아 물을 다스리고 도로를 곧게 펴고 가로수와 코스모스를 심었으며 수십세대의 아담한 살림집을 짓고 집집마다 5~1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탈곡장도 새로 건설하였다.

이들은 애국의 한마음안고 다락논들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고 여러 정보의 랭습지도 개량하였으며 돌각담들을 들추어내고 밭들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기 고장의 땅을 기름진 옥답으로 만들 억척같은 마음을 안고 집집승기르기와 풀베기를 직심스럽게 내밀어 지력을 계속 높여나갔다.

이와 함께 산골지방의 특성에 맞게 집집마다, 분조마다 부림소를 경쟁적으로 길러 농업생산에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그리하여 작업반은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작업반으로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작업반원들은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 길가와 산들에 심는 일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수십정보의 땔나무림을 조성해놓고 잘 관리하여 땔감문제도 풀어나가고있으며 탈곡장주변의 빈땅, 최뚝을 모조리 리용하고 사이그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오이와 가지, 호박, 고추, 배추, 무우 등을 생산하여 농장원세대들에 공급하고있다.

분조장들인 강현후, 박두화동무들과 농장원 전상천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작업반장 리원모동무와 함께 자기 손으로 오늘의 행복을 창조하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

대동강구역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부지런한 실농군이 풍성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는것처럼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도 땀을 흘리며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그 주인이 다름아닌 자기들자신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아글타글 노력하여 짧은 기간에 구역안의 학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킨 대동강구역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동강구역의 일군들이 교육사업에서 참된 주인이 되자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던 때였다. 그때 일군들은 로작을 자자구구 학습하며 누구나 량심의 총화를 지었다.

일이 바쁘다고 교육사업에 관심을 덜 돌린적은 없었는가, 조건이 어렵다고 학교꾸리기사업을 수수방관한적은 없었는가 하고 돌이켜볼 때 자책되는바가 컸다. 여러 계기들에 자신들을 심각히 총화한 구역의 일군들은 교육사업이라면 두팔걷고나서며 좋은 기풍들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흥고급중학교를 훌륭한 본보기학교로 꾸려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수십년전에 건설된 문흥고급중학교의 낡은 모습을 일신시키기 위해 구역의 일군들은 몇년전에 수천㎡에 달하는 외벽타일붙이기공사를 진행하였다. 구역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으로 공사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구역일군들은 외형상 환해진 학교의 모습에 만족해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 접한 일군들은 자기들에게 주인이라는 관점이 부족했다는것을 깨닫고 지난해말 이 학교를 전국적인 본보기학교로 꾸릴것을 결심하였다.

책임일군들은 학교일군들과 함께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설계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고 내부벽체도색작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색갈을 고르기 위해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들을 칠해보면서 연분홍색으로 선정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실험실습실들을 꾸리는데 필요한 수백㎡의 유리를 비롯하여 절박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구역안에 건설대상들이 많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다. 구역일군들의 이런 깊은 관심과 고무속에 학교에서는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에 필요한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어놓은데 이어 내부벽체미장, 출입문과 복도직관물교체, 실험실습실, 문화후생시설, 롱구장, 배구장꾸리기를 비롯한 방대한 일감을 해제꼈다.

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손색없는 본보기학교로 꾸려지게 되였다.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학교가 정말 멋쟁이가 되였다고 기뻐하고있다. 하지만 구역의 책임일군들은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당에서 바라는대로 더 훌륭히 꾸려주기 위해 오늘도 교정을 찾고 또 찾고있다.

룡라고급중학교의 훌륭한 새 모습에도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구역일군들의 뜨거운 열정이 깃들어있다.

학교에서 꾸리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체육관의 낡은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인조석미장을 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재였다. 학교일군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풀어준것은 구역의 책임일군들이였다. 우리가 주인이 되여 풀어주자고 하면서 책임일군들이 직접 먼길을 걸으며 수십의 인조석을 해결해가지고왔던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에 본격적인 학교꾸리기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새 세기 교육기지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학교들에로 등을 떠밀어보내여 교원들의 눈을 띄워주었고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던 학교일군의 마음까지 헤아려 다심하게 보살펴준 구역일군들, 이들의 뜨거운 손길에 이끌려 룡라고급중학교는 오늘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하는 멋쟁이학교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지금 구역에서 진행되고있는 학교정상관리사업도 이곳 일군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엿볼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이 꾸리기사업 못지 않게 중요했기에 구역일군들은 이를 위한 방법론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 8월에 진행된 학교호상간료해사업이였다.

매 학교들에서 정상관리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서로 배우기도 하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뒤떨어진 부족점들을 알려주어 시급히 퇴치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 학교일군들뿐아니라 구역일군들과 후원단체일군들까지 망라시켜 평가와 총화사업을 진행한것은 경쟁열의를 최대한 불러일으키는 옹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시기 후원단체별경쟁을 조직하고 학교지원사업을 떠밀어왔지만 책임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이것만큼 위력하지 못하였다. 호상간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앞선 학교와 후원단체일군들은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였고 뒤떨어진 일군들은 학교들의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분발하게 되였다.

구역일군들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또한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구역의 전반사업을 돌봐야 하는 책임일군들만큼 바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도 구역당책임일군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과경연과 축구반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룡라고급중학교의 교원, 학생들을 만나 꼭 1등을 하고 돌아오라고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제일먼저 학교에 찾아가 축하해주고 구역안의 수많은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학교 교원, 학생들과 함께 소개해주었다.

교육자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이런 사업기풍이 얼마나 좋은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생을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교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당의 뜻대로 사랑과 믿음을 안고 마음속가까이로 찾아오는 일군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자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대동강구역의 책임일군들은 교육사업을 단순히 말로써가 아니라 몸을 내대고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것과 함께 많은 단위들에서 부족되는 교실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대동강구역에서도 소룡소학교증축공사는 부족되는 교실들을 해결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구역의 일군들은 몇년전부터 계획한 이 공사를 올해 당창건 일흔돐전까지 완공할것을 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로력과 자재가 딸려 공사기일이 어방없이 처지게 되자 일군들속에서는 맥을 놓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즉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뜻깊은 10월에 드릴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자고 온 나라가 끓고있는 때에 우리가 당의 후대사랑을 꽃피워 한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당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는 책임일군의 준절한 목소리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러한 때 이 사연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당책임일군은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세멘트, 용접봉, 철근을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는것과 함께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잘 밀고나갔다. 공사장에서는 그야말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럴수록 책임일군의 발자욱은 학교건설현장에 수없이 찍혀졌다.

그런데 기세좋게 다그쳐지던 학교증축공사가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골재가 바닥이 나 건설이 중지될 형편이였다.

이때에도 구역당책임일군은 주저앉지 않고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마철이여서 골재생산량이 줄어드는데다가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하여 야간에도 생산이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밤길을 헤치고 찾아와 호소하는 책임일군의 모습은 골재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해 학교를 건설하겠다고 밤길을 걷는 이런 일군을 우리가 왜 도와주지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골재사업소의 토동계급은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 수백t이나 되는 골재를 보장해주었다.

소룡소학교증축공사는 제기일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학생들의 새 학기 첫 수업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원대한 구상실현의 길에서 참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당과 발걸음을 같이하는 혁명동지, 인민의 충복이 될수 있다는것을 대동강구역 일군들은 희한하게 변모된 학교들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해보였다.

이들처럼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후대교육사업은 순간도 미룰수 없는 나라의 제일중대사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서서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인구실을 다해나갈 때 조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고 창창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명훈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문흥고급중학교에서—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 — 조선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을 세계언론들이 찬탄

인민은 어느때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바로 이런 인민을 하늘처럼, 스승처럼 여기시고 생애의 순간순간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오시였고 한생의 총화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지으신 위대한 어머니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이 땅 그 어디에나 깊이 슴배여있는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가 또 한분의 인민적령도자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민관, 인민관을 절감하였다.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연설은 삽시에 온 행성을 격동시켰다.

로씨야, 꾸바, 웰남, 일본, 인디아, 파키스탄, 영국, 도이췰란드, 에스빠냐, 에짚트, 민주꽁고,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 뻬루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네트들이 애민의 정 넘치는 연설내용을 특대소식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승리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 각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미국의 AP통신은 열병식에서 자신감있게 연설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언제나 조선로동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시였다고 신속히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이라고 언명하시고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으로 평가하시였다고 모잠비끄신문 《노띠씨아스》는 보도하였다.

시작부터 마감까지 장장 70성상 우리 당이 그토록 중시하고 정을 다해 보살펴온 인민으로 일관되고 구절구절 멸사복무정신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국제사회에 준 충격은 비할바없이 컸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였다고 하시며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워주신 인민.

너무나 평범한 이 두 글자에서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 인민을 받들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인민적령도자의 모습을 뵈왔다.

하기에 출판보도물들은 당을 따라 만난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시고 그 정겨운 눈빛들을 그려보시며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된 연설을 하시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 보무당당히 광장을 지나는 열병종대들과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시위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영상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특히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들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는 조선소년단종대가 기세충천하여 행진할 때 그 모습이 너무도 장하고 대견하시여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던 자애로운 위인의 영상을 거듭 모시였다.

대해같은 인민사랑과 숭고한 후대사랑의 체현자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국제사회계에서는 그이를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분》, 《한없이 겸손하고 인자하신분》,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분》, 《세심하고 자애로우신분》, 《위풍있으면서도 친절하신분》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언제인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민관에 대해 이렇게 전한바 있다.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신 김정은원수께서는 새 집을 찾아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가는것이 조선인민의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어 가정용품들도 마련해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집식구들과 방바닥에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자식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시였으며 친히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고계신다,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은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하다면 김정은령도자께서 어떻게 되여 인민들로부터 그처럼 열화같은 사랑을 받고계시는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조선의 령도자께서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캄보쟈신문 《크마에 아마따》,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인민을 위하여 령도자도 일군들도 있다는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정치철학으로, 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위인의 투철한 인민관을 칭송하였다.

신문들은 김정은각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데 대하여 당부하신다, 이것은 그이께서 자신앞에 내세우신 요구이기도 하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다고 서술하였다.

세계가 접한 령도자와 한피줄 이은 인민

돌이켜보면 기나긴 인류사는 많은 정치가들과 위인들을 기록하였다.

그중에는 인민을 표방하며 로동계급의 당, 인민의 정권을 세운 정치가들도 있었고 인민만세, 만민복지를 제창하며 민주사회건설을 이끈 위인들도 있었다.

허나 인민과 혈연의 정을 맺고 인민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며 번영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분은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이 그토록 뜨겁고 인민에게 쏟으시는 정이 그처럼 진실하기에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은 인민을 지켜 멀고 험한 배길도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원수님을 받들어 산악도 떠옮기고 전화위복의 기적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이 세상 그 누가 만들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소개하면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의 한없이 자애로운 풍모는 세상천하가 얼어붙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한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지구인력과도 같은 령도자와 조선인민의 혈연적관계는 핵폭탄으로도 가르지 못한다는 진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그이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는 10월의 대축전장을 뒤흔든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에서 뚜렷이 분출되였다.

각국 언론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불패의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사, 독창적인 청년중시정치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산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진 김일성광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론들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대하가 굽이쳐흐르고 청년강국이 새로운 시대어로 된 위대한 김정은시대, 령도자의 두리에 억년성벽을 쌓은 이 나라 수천만 인민과 청년대군의 위용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규모열병식이 있은 장소에서 어두워진 후 홰불행진이 진행되였다.

조선청년들은 세차게 쏟아져내리는 비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행진하였다.

행사는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수령의 사랑을 다시금 과시하였다.

영국의 BBC방송도 홰불행진은 한마디로 화려하고 눈부신 행사였다, 어둠이 깃들자 수많은 조선청년들이 김일성광장을 꽉 메우며 홰불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홰불을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만세!》를 웨쳤다, 홰불로 선대수령들의 존함글발들을 모시고 당마크를 새기면서 행진하는 장면은 참으로 희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ITV NEWS는 행사전기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김정은령도자께로 집중되여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군중시위참가자들이 주석단앞을 지나면서 자기의 령도자를 우러러 보여준 모습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는 북조선이 자기 사상의 힘을 어떻게 과시해야 하는지 잘 알고있는 나라라는것을 목격하였다.

메히꼬신문 《엘 우니베르쌀》은 조선은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통하여 나라전반에 대한 김정은각하의 령도력을 보여주었으며 령도자와 군대, 인민의 단결된 모습을 시위하였다고 평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경축행사들은 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그 의미는 자못 깊다.

인민을 더없이 사랑하시는분,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인민의 령도자를 또다시 뵈온 세계, 령도자와 명줄을 잇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인민, 령도자를 따라 험산준령도 류례없는 시련도 웃으며 넘고 헤쳐갈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다시한번 절감한 세계였다.

세계는 일심의 대화원,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어디 가나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고 인민의 상징인 마치와 낫과 붓이 그려진 조선로동당기는 더더욱 높이 휘날릴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이여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무궁토록 번영하라!

【조선중앙통신】

치졸한자들이 돈주머니를 흔들어댄다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어지러운 파거와 결별하기 몹시 싫어하고있다. 최근 유엔주재 일본외교관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성노예 등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하여 《위안부》문제 등 파거사문제는 이미 정리되였다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파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이미 해결되였으니 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그가 정부의 립장을 대변하여 이런 소리를 하였다고 볼 때 일본반동들의 철면피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다시금 까밝혀보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일제가 해당 나라 인민들에게 들씌운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특히 일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악독한 죄행은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을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암흑속에 몰아넣고 극악무도하게 탄압살륙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배상은 고사하고 언제 한번 사죄와 반성을 똑똑히 한 때가 없다.

일본이 파거사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왜 유엔무대에서 오늘까지 그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사죄와 배상은 범죄적사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파거범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하기 위해 력사외곡책동에 매여달리며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성노예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증거가 있으면 내놓기 바란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다. 이처럼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를 오늘까지도 한사코 부인하는자들이 파거사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였다는것인가. 이것은 파거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것을 일본자체가 스스로 립증해주는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반인륜범죄행위들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이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것이다.

미국땅에서 일본외교관들이 죄악의 력사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심에 의해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추모비를 그 무슨 재정지원을 미끼로 철거해보려고 흥정하는 추태를 부렸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최근 중국남경대학살자료의 세계기억유산등록에 반발하여서도 그런 유치한 방법에 매달리고있다. 일본내각관방장관은 중국당국이 유네스코에 유산으로 신청한 문서의 진위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느니, 국제기구가 일본이 열심히 분담금을 내여 협력하고있는데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의 기구분담금에 대해 지급중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것이라고 떠들었다.

물론 이런 엇드레질이 돈이면 만사가 해결될것이라고 보는 일본특유의 간특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뻔하다.

하지만 이것이 지난해에 가고시마현의 어느 한 회관에 보관되여있는 《자살특공대》대원의 유서와 편지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얼마전에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범죄적력사를 안고있는 여러개의 산업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도 저들의 행위가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권고에 따른것이라고 곧잘 우겨대던것과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저들에게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리다가도 불리할 때에는 몇푼의 돈을 가지고 기구에 삿대질하며 치졸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을 국제사회는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다.

일본의 파거청산문제는 반인륜적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도덕적문제이며 국제법적문제이다. 그것은 죄악에 찬 파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도 된다. 국가적범죄는 국가가 책임지는것이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파거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유치하게 돈주머니를 휘둘러대는자들이 똑똑히 명심할것이 있다. 파거의 범죄를 부인하는 국가는 나중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이전 유네스코 총국장 마쯔우라 고이찌로는 분담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한다면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감이 저하되는데 박차를 가하고 무덤을 파게 될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파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에 차례질것은 국제사회의 버림밖에 없다.

리 현 도

력사 및 문화기념물보존사업에 힘을 넣는 로씨야

로씨야는 력사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많은 나라이다. 이 모든 력사 및 문화유적들은 귀중한 정신적 및 사회적재부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로씨야는 력사 및 문화유적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는것을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2002년 6월 25일에 채택된 력사 및 문화유적보호관련법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법은 로씨야련방 다민족인민들의 오늘날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을 담보하고 그 보호사업을 로씨야련방 국가기관들과 련방주체 국가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기관들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로씨야는 력사 및 문화유적보존사업을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로 그리고 매 공민들이 지닌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최근 로씨야에서 모스크바 크레믈리의 탑들을 장식하고있는 붉은별들중의 하나인 뜨로이쯔까야탑의 붉은별수복공사를 진행하였다.

크레믈리는 끊임없는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의 웅장하고 화려한 자기의 풍격을 갖추었다.

이전에 크레믈리의 4개 탑은 로씨야 옛 제국을 상징하는것으로 장식되여있었다. 수복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1935년에 모든 탑장식물들이 오각형의 붉은별로 교체되였다.

붉은별의 형성도안은 두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그리하여 적동광으로 도금한 구조물들은 7 000개의 매끈하게 세공된 황옥과 수정으로 장식되였다.

1t에 달하는 붉은별의 무게때문에 낡은 탑들이 무너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탑을 강화, 보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현재 모스크바 크레믈리에는 5개의 붉은별이 설치되여있다. 다섯번째 별은 원래있던 4개의 별에 추가로 설치되였다.

모스크바 크레믈리의 스빠스까야탑과 니꼴스까야탑에 설치된 가장 큰 별들의 길이는 3.75m이다. 다양한 높이의 탑우에 자리잡은 별들은 똑같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크기로 만들어졌다.

모스크바 크레믈리의 탑들을 장식하고있는 독특한 붉은별들은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되고있다.

력사의 사연을 안고있는 크레믈리의 붉은별들은 력사유적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보존에 선차적인 의의를 돌리고있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에 의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 력사발전의 증견자로 남아있는 크레믈리의 붉은별들은 로씨야인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박 춘 식

유네스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21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유산들을 보호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단죄하였다.

적들의 심리모략책동 단죄

이란정보상이 20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는 적들은 이슬람교나라들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던 책동이 실패하자 이 나라들을 분렬시키기 위해 비렬한 심리모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고 밝혔다.

이란정부는 적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고온현상

브라질의 기상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엘니뇨현상으로 동부와 서부, 북부의 36개 도시들에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40℃이상의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장본인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이 최근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 안드레이 이와노브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의 장본인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방송은 며칠전 오바마와 박근혜가 백악관에서 만나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성명내용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로씨야는 사실상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있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는 있다.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게 한 장본인이다.

동시에 미국의 비협조적인 대조선정책으로 평양이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한 사실을 리해해야 한다.

이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것이 아니다.

2000년대초에 조선이 남조선, 유럽동맹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경수로제공을 기대하고있을 때 미국은 갑자기 조선이 비밀리에 무기급우라늄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나섰다.

그 일로 하여 조선에 대한 경수로제공은 차단되였다. 그에 대응하여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감시단을 내쫓고 플루토니움계획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합세하였다.

하지만 매번 일련의 합의에 도달할 때면 미국은 새로운 비난과 요구를 들이대였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협상의지를 방해하군 하였다.

결국 평양은 워싱톤과의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였으며 일련의 핵시험이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

당시 미국정부가 추구한 목적과 관련하여 중국전문가들은 조선이 남조선, 유럽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 개입할수 있는 표면적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스뿌뜨니크방송은 평양을 상대로 벌리는 미국의 모든 소동은 조선의 《핵위협》을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라고 폭로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문제는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겨냥한 워싱톤의 야망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의 핵페기를 원한다고 믿겠는가.

일본인들 《안전보장관련법》페지를 요구

일본의 도꾜에서 18일과 19일 당국이 강행채택한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벌어진 시위들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현 당국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페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의 위험한 제해권장악책동

최근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조선반도 남부해안에 들어와 남조선괴뢰들과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미국이 벌리고있는 군사적책동의 목적과 그 위험성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리해를 주기 위하여 국제문제전문가인 김혜정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 최근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대답: 그렇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달초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일본의 요꼬스까항에 입항하였다.

이번에 기여든 《로날드 레간》호는 요꼬스까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여 태평양상에서 활동하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대신한다고 한다.

지난 23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순양함, 이지스구축함들과 함께 부산앞바다에 들이밀어 남조선괴뢰군파의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로날드 레간》호를 비롯한 전쟁수단들을 또다시 조선반도주변해역에 들이민것은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물음: 일본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핵항공모함배비책동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가.

대답: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요꼬스까항에 새로 기여든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의 일환으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에 새로 배비된 《로날드 레간》호는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의 후계함이다.

《죠지 워싱톤》호는 67대의 군용기와 약 5 000명의 성원, 방대한 량의 폭탄과 포탄을 적재하고있다. 두척의 순양함과 한척의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척의 함선들로 전단을 이루고있는 이 바다의 거대한 《괴물》은 그 군사적위협성으로 하여 지구상 그 어디에 가나 지역적긴장만을 고조시켰다.

미국은 2008년에 《죠지 워싱톤》호를 일본의 요꼬스까해군기지에 배비한 후 지난 7년간 이것을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는 기본수단들중의 하나로 리용하여왔다.

조선반도유사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임무를 맡고있던 《죠지 워싱톤》호는 해마다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벌리는 일본, 남조선과의 해상합동군사연습들에 참가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일삼아왔다.

이번에 교대한 《로날드 레간》호로 말한다면 《죠지 워싱톤》호보다 후에 건조되여 미해군에 취역하였다. 그만큼 성능에서 《죠지 워싱톤》호를 릉가하는 최신예핵항공모함이라고 말할수 있다. 결국 이번 핵항공모함들의 배비변경놀음은 단순한 교대가 아니라 군사력증강인것이다.

물음: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일환으로 세계의 주요해상통로들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오래전부터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이번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의 군사력증강책동도 그 일환으로 되지 않는가.

대답: 그렇다. 이미 랭전시기에 미국은 말라까해협, 호르무즈해협, 지브랄타르해협, 수에즈운하, 빠나마운하 등 16개의 세계주요해상통로들을 통제할데 대한 계획을 작성발표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해상에 대한 지배권야망을 버리지 않고 22개의 새로운 해상요충로명단을 발표하는 등 주요해상통로들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전세계에 조밀하게 구축해놓은 군사기지들과 전략적지점에 위치해있는 섬들, 항공모함전투집단에 의거하여 임의의 해상통로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실례로 조선해협과 대만해협, 말라까해협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남조선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해놓았으며 태평양의 해상요충로에 위치하고있는 괌도에도 전략폭격기들과 핵잠수함들을 배비하였다. 이번에 일본의 요꼬스까해군기지에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새로 배비한것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물음: 미국은 현재 괌도에 수많은 타격수단들을 갖추어놓고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괌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있는가.

대답: 태평양서부 마리아나제도에 속한 섬인 괌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괌도는 미태평양함대기지가 있는 하와이로부터 6 000km, 북쪽으로는 일본, 서북쪽으로는 대만, 서쪽으로는 필리핀과 각각 2 500km정도씩 떨어져있다. 하여 괌도는 서태평양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할수 있는 요충지로 되고있다. 괌도에 있는 공군기지들에서 리륙한 미군의 전략폭격기는 12시간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그 어떤 목표도 타격할수 있다. 여기에 바로 조선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괌도의 위험성이 있다. 몇년전에 미국은 괌도에서 전략폭격기가 남조선에 날아드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최대의 위협을 가한적이 있다. 괌도는 그야말로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과 무장장비투입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적요충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진기지로 전변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주요해상통로장악을 통한 조선반도지배전략을 꾸며놓고 그 실현을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책동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전면적인 반미대결전으로 대응해나감으로써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금성철벽이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압력책동에 대처하여 지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안 철 권

ㄱ-5116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